

미 상의 경제계 인사와의 오찬

미 상의에 초청해 주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3년에도 상의에서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양국 관계에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대화 도중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말과 안보 정치 관계에 대한 말부터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9월 11일 핀란드 헬싱키 ASEM 정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핀란드 의장이 주도해서 9.11 희생에 대한 위로 묵념과 미국의 테러 방지와 근절 노력에 대해 지지하는 짧은 의식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 관계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서 오기 전에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시 짚어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미국의 지원에 의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자유 질서와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미 동맹 관계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한-미 관계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할 것은 한-미 동맹의 지속 발전과 북핵 문제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저의 재임 일치하는 재임 기간 동안 한-미 관계에 가장 많은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표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와 결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변화와 결실은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